

# 금사과 이유 있네...유통과정 거치니 167% '깡충'

### 3월 사과값 전년대비 88.2% 올라...작년 생산량 30.3% ↓

### 유통단계 비용 과도...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 60.6% 차지

#. 착과량이 절반 가량 줄었지만 소중하게 키운 사과가 농가에서 최초 출하될 때 1500원 가량에 판매된다. 이후 산지 공판장, 도매시장 등 총 5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수수료가 붙어 비싼 몫이 된다. 1500원 하던 사과는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에는 4000원으로 된다. 산지를 떠나 소비자에게 닿기까지 무려 가격이 167%나 오른 셈이다.

사과 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사과 대란' 원인으로 꼽

힌 생산량 감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유통 시장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쏠려 있어 중간 유통상들이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사과 대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값은 전년 동기 대비 88.2% 올랐다. 가격 집계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사과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량이 줄어든 정도보다 사과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428t으로 전년(56만6041t)보다 30.3% 줄었다.

이를 두고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사과 대란'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사과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은 60.5%에 이

른다. 그리고 사과 도매가는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결정된다. 통상 농민들은 4~7%의 수수료를 낸다.

또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때는 총 5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마진이 붙어 가격이 오른다.

충남 예산군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상당수가 예년보다 착과량이 40~50% 이상 줄었다"며 "사과 값이 비싸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농민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이미 실태조사에 나섰고,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확대. 온라인 도

매시장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낮추나가고 직거래 도입을 추진해 유통 단계에서 붙는 비용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사과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은 현재 0%다. 이를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은 60.5%에서 30%수준으로 낮추고 유통비용도 현재 62.6%에서 56%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직거래 확대를 위해 산지·소비지 거래 주체를 대상으로 조직화를 시도하고 향후 참여 주체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완도 전북 반값에 드려요" 이마트 90개 지점서 판촉

완도군이 전북 홍수출하와 가격 하락에 대응해 반값 할인행사를 펼친다. 완도군은 11일까지 전국 이마트 90여개 지점에서 '완도 전북 최대 50% 할인 판촉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4~5월은 품질 좋은 전북이 홍수 출하되는 반면, 북남이나 명절에 비해 수요가 적어 전북 생산 여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 대전'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판매 가격의 할인폭을 높여 이마트 판촉전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와 (주)영남식품은 "최근 이마트 영남점에서 판촉전을 갖고 전북 구매 고객에게 '완도 순살전복' 증정 이벤트를 펼쳤다.

## 여수세계박람회장 서포터즈 모집...19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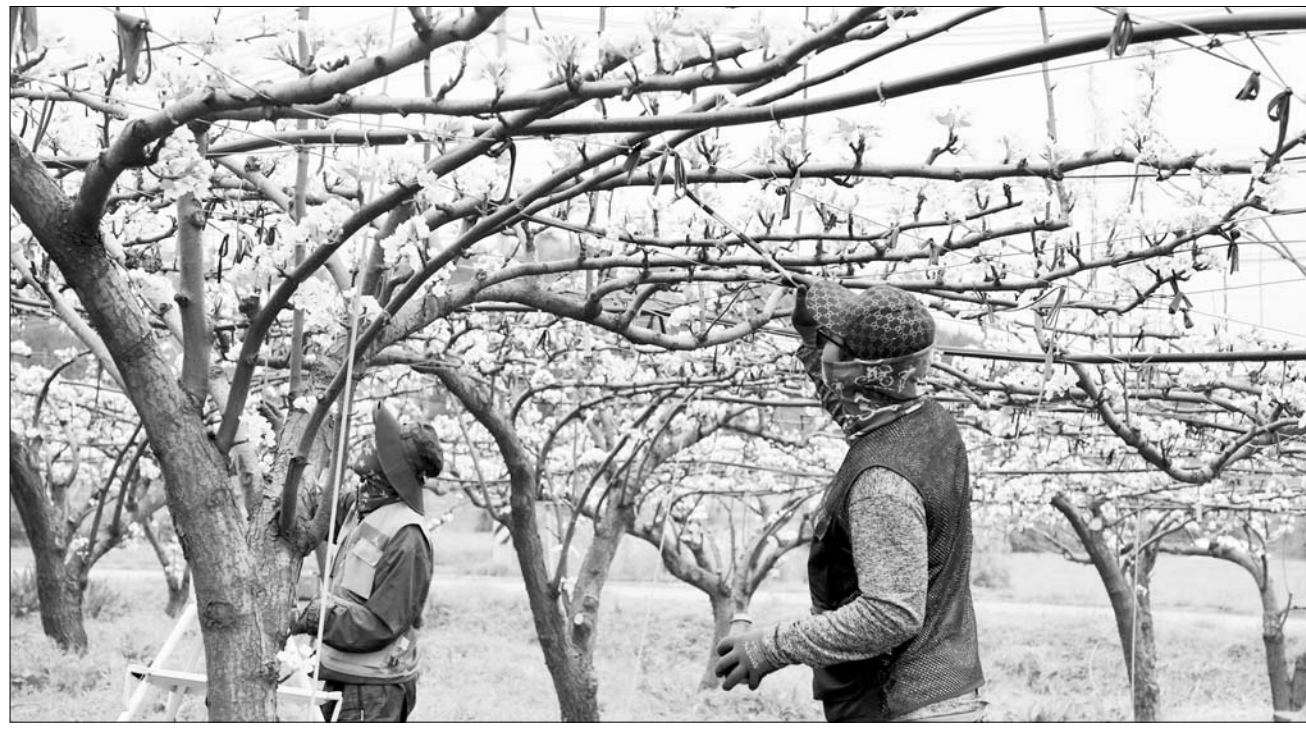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퍼스트 서포터즈'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사의 박람회장 인수 이후 최초로 선발되는 '퍼스트 서포터즈'는 3개 팀, 9명을 선발하며, 박람회장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서포터즈에 선발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마스터플랜 관련 콘텐트 △박람회장 사업 및 행사 등 홍보 콘텐트 △자율콘텐트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공사는 활동 중 콘텐트 제작비를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 우수팀에게는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의 '퍼스트 서포터즈'가 되고 싶다면 공사 홈페이지 (<http://www.ygpa.or.kr>)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 마감 이후 평가를 통해 '퍼스트 서포터즈'를 최종 선발하여 5월 3일 공고할 예정이다.

공사 박성현 사장은 "창의적인 분들과 박람회장을 트랜드하게 홍보해 나간다고 하며, 향후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해 시드니, 나폴리, 리우데자네이루에 버금가는 세계 4대 미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영암 들녘에 '배꽃' 한창 지난 8일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들녘의 한 과수농장에서 활짝 만개한 배꽃에 꿀벌을 데려온 수정 작업이 한창이다. /영암군 제공

## 전남 농축협 5곳, 카드부문 성과 인정

### 대상 광양농협 · 순천광양축협...최우수상 1 · 우수 2곳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산하 농축협 5곳이 지난해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한 신용카드 사업 부문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협 전남본부는 9일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남 관내 5개 농축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 대상은 광양농협과 순천광양축협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동광양농협, 우수상은 광양원에농협과 함평 월야농협이 각각 수상했다.

NH농협카드 연도대상은 농협 내 카드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2009년 NH농협카드 출범과 함께 매년 시상되어가고 있다.

사무소발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 실적과 총이용액 지표 달성률 평가 등을 기준으로 시상 조합을 선정한다.

##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비 10.3% 인상

### 590명에 월30만원씩 지원...민선 8기 두차례 거쳐 10만원 ↑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해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들의 주거지원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주거비 인상은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다.

광주시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광주형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거비 인상을 결정하고, 추경에 7300만원을 더해 올리는 주거비로 총 20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민선 8기 시작 직후 212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주거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해 최대 557명에게 매월 27만2000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세수 부족 등으로 광주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형일자리 성공 추진을 위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최우선 고려한 것이다.

또 "202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거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광주시는 주거비 인상과 관련해 노사민정협의회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대리 이하 근로자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과장급 근로자 590명에게 월 30

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주거비 지원 외에도 빚그린산단에 노사상생 및 근로자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센터와 개방형체육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한다.

또 국·시비,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매년 근로자에게 문화지원비 15만원, 건강검진비 25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2030년 입주예정인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내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 300호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 GGM에 안정적인 노사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근로자 처우 개선을 통한 노사상생과 광주형일자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서산나래·포스코GYR테크 장애인 연계고용 '맞손'



광양 서산나래는 포스코GYR테크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GYR테크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서산나래의 제과제빵 생산품을 연간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구입하고, 서산나래는 해당 기업이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거나 그 생산품을 납품하는 경우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 '빛투' 6개월 만에 최고...한 달 새 1조 원 급증

### 투자자 예약금도 60조원 육박...CMA 잔고 81조6101억

국내 주식시장에서 빛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빛투' 규모가 크게 늘어나 2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 달새 1조원 가까이 급증하는 등 6개월 만에 최고치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신용거래용자는 19조4772억원으로 한 달 전(18조5262억원)보다 9510억원 늘어났다. 월말 기준 지난 해 9월(19조7029억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달 들어서도 19조원대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4311억원, 코스닥시장에서 9조323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잔고비율 상위종목을 살펴보면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

스 반도체 기업 팹리칩스가 9.12%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8.95%), 바이오 기업 HLB바이오스(8.91%), 친환경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코리아에프티(8.75%), 잉크젯 생산장비업체 HB솔루션(8.7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 5000억원이 채 안 되는 기업들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이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단기간 차익 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약금도 지난 1일 59조6299억원을 기록해 60조원에 육박했다. 2022년 6월2일(61조6321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도 지난 8일 기준 81조6101억원으로 지

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같이 투자 심리가 살아난 건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등에 기인한다. 다만 국내 증시는 전일 휴장을 앞두고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수치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꽤나 강하게 작용한 듯하다"며 "미국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발표 결과가 시장에 상치에 부합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며 흑역사 시기에 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시장에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중고차 하이브리드·전기차 거래 늘었다

### 3월 하이브리드·전기차 거래, 전년 동월보다 22.8% ↑

중고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IG)와 아이오닉5가 HEV와 EV 실거래 대수 1위를 모두 차지했다.

10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3월 HEV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7585대로, 지난해 3월(6176대)보다 2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EV 중고차 실거래 대수도 2057대에서 2525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8% 늘었다.

3월 중고차 실거래 전체 대수는 지난해 3월보다 줄었지만, HEV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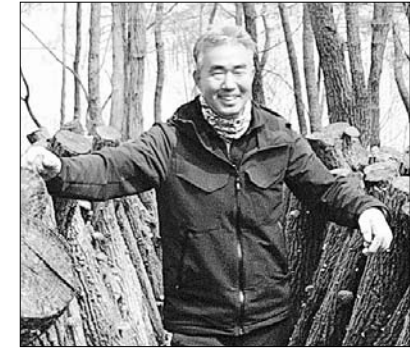
EV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3월 중고차 실거래 전체 대수는 20만9083대로, 지난해 3월(23만2122대)보다 9.9% 줄었다.

현대차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IG)의 3월 실거래 대수는 644대를 기록했다. 이어 ▲기아 쏠렌토 하이브리드(MQ4) 477대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IG) 412대 ▲기아 니로 355대 등의 순이었다.

현대차 아이오닉5의 실거래 대수는 275대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모델3 263대 ▲기아 EV6 197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166대 등이다.

## 4월 임업인 표고버섯 재배 최경환 대표

### 50~70년 소나무·참나무숲서 생산...특유 식감·향 깊어



전남도는 4월의 임업인에 장흥 유치면 소나무·참나무숲 일원에 서 원목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최경환 전신산농원 대표를 선정했다.

최경환 대표는 2017년 임업후계자 등록을 시작으로 2018년 자영독림가로 등록,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버섯을 전공하며 품질 좋은 표고버섯 생산과 다양한 상품개발

로 임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장흥 유치면 윤일리 일원 5만㎡ 부지에 10만 본의 원목 표고버섯을 재배해 연간 5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생표고, 건표고차, 건표고가루, 건표고깍두기, 건표고고추장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전신산농원은 환경사자가 넓게 분포하고 주변 하천으로 습도가 적정하며 50~7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숲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어, 특히 식감과 향이 한층 깊다.

'산속의 고기'로 불릴 만큼 영양가 높은 표고버섯은 맛있는 식감과 특유의 향이 있으며, 특히 비타민D 생성을 돕고 에코스테롤 성분이 풍부하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 /조순의 기자